

지역 소식 통

정읍시, 2025 정다운 할인
동행축제 22일부터 개최

정읍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2025 정다운 할인 동행축제'를 정다운 상권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샘고을시장, 중앙로, 우암로, 새안로에서 펼쳐지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9월 동행축제와 연계한 대국민 소비 촉진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축제 기간에는 상권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면 물렛게임에 참여해 정읍쌔센드와 오쌔보쌔 쿼츠 등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다.

또 고추장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5000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경품 이벤트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정다운상권 SNS 채널을 구독한 방문객들에게는 소정의 사은품도 증정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추석 맞이 환경
오염 · 악취 통합점검 실시

부안군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관리 · 감독 취약 시기를 대비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과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등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14일까지 28일간을 '추석 연휴 환경오염 감시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배출사업장의 관리 실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특히 악취 발생으로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점 감시 대상지역 시설에 대한 사전 계도와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 환경오염 취약업소 및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감시 · 순찰 활동과 특별단속도 병행한다. 또한 농공단지 배출업소 및 주변 하천 등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시니어 의사 주치의제' 인정 받아

정읍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행정혁신부문 대상' 수상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에 크게 기여한 정읍시의 '시니어 의사 주치의제'가 전국 모델로 인정받았다.

19일 서울 중구 KC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정읍시는 행정혁신부문 대상을 품었다.

이 상은 지역 발전에 뚜렷한 성과를 낸 기초자치체를 엄격한 심사로 선정해 우수 행정사례를 널리 확산시키는 취지로 제정됐다.

시상식은 이태원리가 주최했고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국회 행정안

전위원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이 후원했다. 평가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 심사로 진행됐다.

시는 초고령사회라는 지역 현실과 의료 공백 심화를 직시하고, 전국 최초로 '시니어 의사 주치의제'를 도입했다. 경력이 풍부한 시니어 의사가 고령 시민을 관리하는 구조를 세워 접근성을 높였고 맞춤형 건강 상담과 연계 지원으로 시민 건강권을 지켰다. 지속 가능한 지역 의료 체계를 설계한 점이 혁신성, 공공성, 확산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한 사업의 성과를 넘어 민생기 정읍시정이 추진한 적극행정과 혁신정책이 실제 삶의 변화를 만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읍형 모델은 의료취약지 해소 · 초고령사회 대응의 정책 대안으로 전국 확산이 기대된다.

이화수 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의 참여와 공직자들의 묵묵한 헌신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행정으로 '100년 정읍의 미래'를 흔들림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가 2025년 두번째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안해결 · 국가예산확보 협력”

고창군-민주당 지역위 정책협의회, 군수 등 참석 주요현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과 더불어민주당 주당 지역위원회가 2025년 두번째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책협의회에서는 군정 주요사업 41건(현안 18, 국가예산 23)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2026년도 국가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고창군의 핵심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대선공약으로 반영된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 △노을대교 조속착공 △전북 서남권 RE100 산업단지 확대 조성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조성 사업 등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고창군이 제시한 사업은 민생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올해 이뤄낸 눈부신 성과는 군민 모두가 한마음을 한뜻으로 함께해주시는 결과”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수기관 선정, 그리고 청년특화주택 건립사업 등 굵직한 공모사업 선정 등이 있다.

정책협의회에서는 군정 주요사업 41건(현안 18, 국가예산 23)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2026년도 국가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고창군의 핵심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대선공약으로 반영된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 △노을대교 조속착공 △전북 서남권 RE100 산업단지 확대 조성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조성 사업 등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고창군이 제시한 사업은 민생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올해 이뤄낸 눈부신 성과는 군민 모두가 한마음을 한뜻으로 함께해주시는 결과”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 동촌풍력발전, 해상풍력 사업 상생 협약

고창군과 동촌풍력발전(주)(대표 오희종)이 지난 19일 오후 신재효 판소리 공원 체력관에서 에너지 개발의 이익 공유 등을 위한 '고창해상풍력 발전사업 지역상생 협약식'을 열었다.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오희종 동촌풍력발전대표 등 관계자와 지역주민이 참석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협약은 △주민 참여형 사업 추진 △지역 인력 및 장비 · 자재 우선 활용 △수산자원 보호 및 지역사회 공익활동 참여 등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고창군은 행정적 지원을, 동촌풍력발

전(주)은 사업 총괄과 지역 기여를 책임지며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오희종 동촌풍력발전(주) 대표도 “고창군과 함께 지역과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모범적 사례를 만들겠다”며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 기여를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에너지 개발을 넘어 군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일자리창출 · 지역경제 활성화 힘쓸 것”

정읍시 일자리경제국 브리핑

정읍시는 19일 일자리경제국 정례브리핑을 열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올해 주요 사업 성과와 내년도 계획을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이 나서 민생안정부터 미래 첨단산업 육성 · 지역협력 증진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다방면의 정책들을 소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류 국장은 먼저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과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고용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오는 10월 하반기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구인 · 구직간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약 1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 카드수수료 · 특별보증을 지원하고,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000억 원으로 확대 · 할인율을 15%로 상향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정읍으로 전입하는 청



정읍시는 19일 일자리경제국 정례브리핑을 열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올해 주요 사업 성과와 내년도 계획을 밝혔다.

년에게 최대 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 하는 신규 사업을 시행하며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이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연계한 전략으로 현재까지 55개 기업을 유치했으며, RE100 첨단

의료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업 1 공무원 전담제'와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을 운영해 기업 애로를 적극 해결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중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부안교육지원청, 부안사랑 인구감소 위기 극복 캠페인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심화되는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관내 주요 기관 · 단체와 협력하여 '부안사랑 인구감소 위기 극복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 17일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안)을 방문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직원들과 함께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이는 지난 3일 부안경찰서와 첫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두 번째 협약 체결이다.

부안교육지원청 김수안 교육장은 “부안군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캠페인에 함께 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하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자라는 교육환경 조성이 곧 부안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밑바탕이기에, 앞으로도 부안교육지원청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관내 기관 · 단체와 '부안사랑 인구감소 위기 극복' 협약

을 순차적으로 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구정책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하여 전입 분위기 조성 및 지역활력 회복을 위한 인구정책 확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캠페인의 주요 협약 내용은 △부안 사랑 주조갯기 실천운동 적극 동참 △부안사랑 실천 캠페인 참여 △부안사랑인 제도 및 전북사랑도민제도 확산 △인구감소 위기 극복 공동 협력 등이 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